

# 승효상의 건축스케치展 'SOULSCAPE', 3월 12일까지 개최

Seung H-Sang's architectural sketch exhibition  
'SOULSCAPE' to be held until March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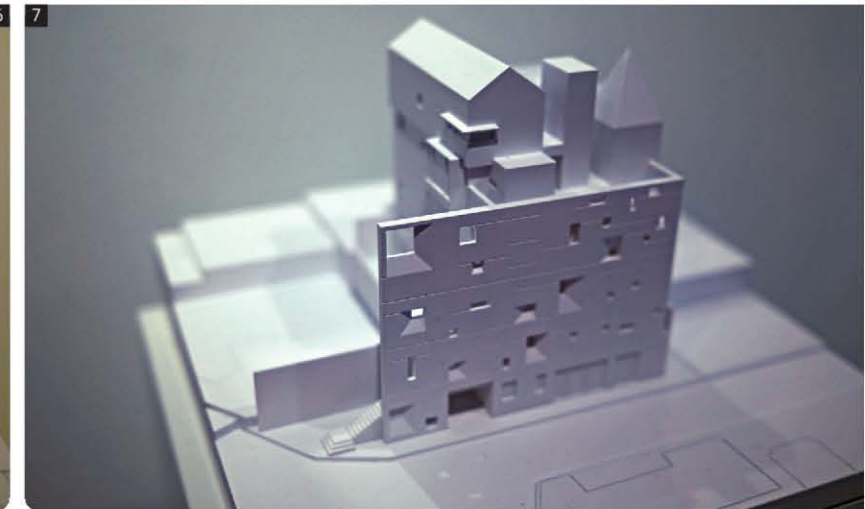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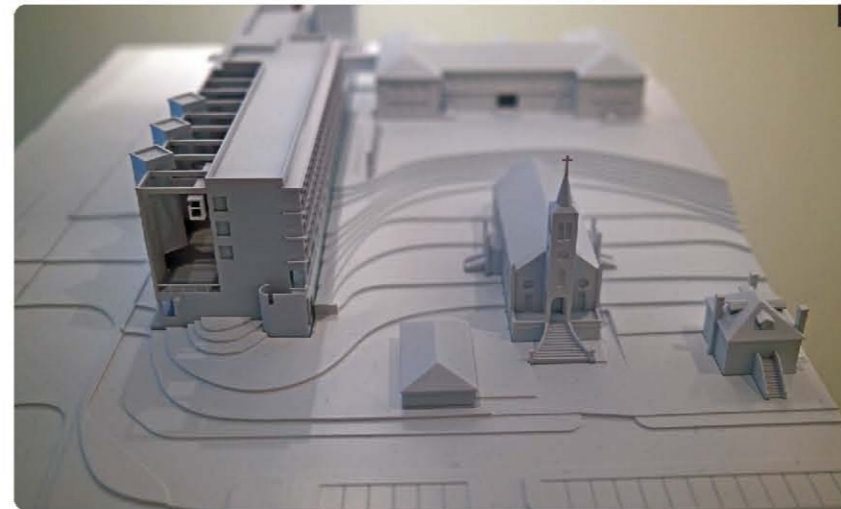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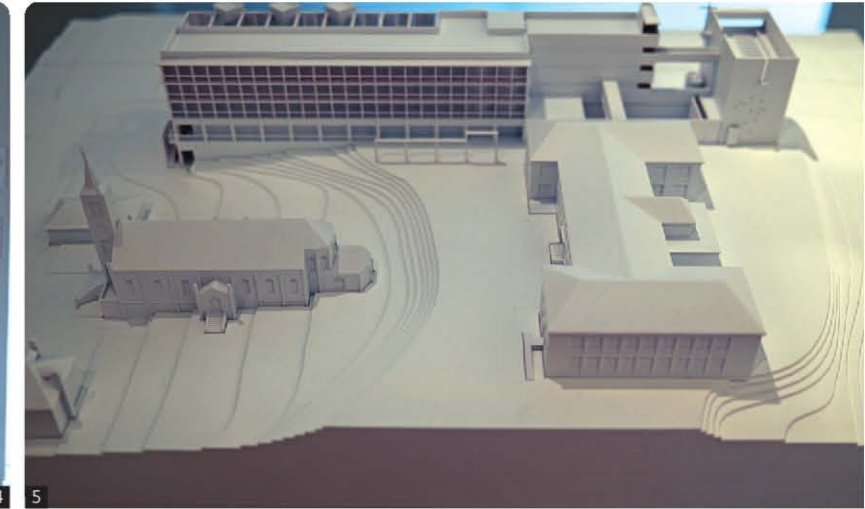
건물의 조형적 요소와 그 속의 관념 살펴볼 수 있는 '건축스케치' 공개



前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승효상 건축사(전 국건위원장)의 개인전 '건축스케치전 SOULSCAPE'가 3월 12일까지 서울 청담동의 갤러리508에서 개최된다. 승효상 건축사가 그려낸 생각의 표상을 담고 있는 스케치북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는, 드로잉이 어떻게 조형물로 탄생하게 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전시 스케치는 그가 10년간 작업한 프로젝트들 중에서 선별된 작품으로 구성됐다. 스케치북 속의 내밀한 내용을 그대로 전시하는 형식이기에 그림들은 작지만, 건축적 관념과 생각의 싹이 어떻게 숙성되고 확장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읽을 수 있다. 12개의 프로젝트는 종교나 죽음과 관련된 건축뿐 아니라 단독주택, 커뮤니티센터,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승효상 건축사는 "건축사의 드로잉은 생명에 대한 존경과 애정으로 그리는 소심한 제안서이자 그렇게 설정하는 대본이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제 드로잉을, 보는 그림이 아니라 삶에 관한 대본으로 여기시고 찬찬히 읽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시는 2월 10일(목)부터 3월 12일(토)까지 갤러리508(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67길 14 1층)에서 진행되며,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관이다. 전시장에는 프레임에 담은 스케치들과 그 스케치들이 만든 작은 건축모형이 전시되며, 전시된 드로잉은 갤러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전시 문의는 갤러리(02-6448-5087/info@gallery-508.com)로 하면 된다.

육해민 기자



1. 갤러리 전경
- 2, 3. 갤러리 한가운데 놓인 승효상 건축사의 책상을 통해 그의 작업공간을 선보이고 있다.
- 4-6. 갤러리에 전시된 '왜관베네딕도수도원 피정센터' 관련 드로잉과 건축모형.
7. '아쿠아리우스 피라미드-장미회를 위한 복합문화시설' 건축모형.
8. 갤러리에 전시된 건축스케치 작품.